

金佐鎭將軍의 항일독립운동 성격과 역할

- 투쟁노선과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

朴 桓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서 언
2. 김좌진의 투쟁노선
3. 김좌진의 정치이념
4. 김좌진 암살문제
5. 결 어

1. 서 언

1910년 국망 이후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국내·외에서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가운데서 김좌진은 靑山里戰鬪를 승리로 이끈 대표적인 민족운동가이며, 무장투쟁론자로서 널리 알려져 왔다.¹⁾ 그

1) 김좌진의 항일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는 1993년 흑룡강성 해림시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주요 논문 및 면담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강용권, 「산조의 성장으로부터 본 김좌진」,

결과 청산리전투와 관련하여 김좌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²⁾ 또한 1920년대 중반이후 북만주에서 김좌진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新民府, 韓族總聯合會 등에 대한 연구와³⁾ 아울러 최근에는 중국학자들에 의하여 김좌진의 암살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으며,⁴⁾ 2000년 8월에는 청산리전투 승전 80주년 및 2000년 8월 문화인물 선정 기념 학술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⁵⁾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 항일운동가로서의 김좌진에 대하여 상당한 부분이 밝혀졌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김좌진의 러시아지역 활동, 歸滿 이후 신민부 조직이전의 활동, 러시아공산당과의 관계, 재만 한인사회와의 관계,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대한인정책 사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고뇌했던 김좌진의 모습, 국내와의 관계 등이⁶⁾ 사실적인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청산리전투 등 그의 승리에 대한 내용들도 보다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좌진의 투쟁노선,

박기봉, 「김좌진장군」, 「김좌진피살설에 대한 연구」, 김원석, 「김좌진 평가에 관한 연구」, 안화춘, 박경재, 「김좌진 암살설에 대하여」, 오기송, 「김좌진에 대한 나의 견해」, 서재춘, 「백야 김좌진과 산시」, 양환준선생방문록. 그후 국내에서는 박영석, 중국 연변에서는 박창욱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박영석, 「백야 김좌진장군 연구」, 『국사관논총』 51, 국사편찬위원회, 1994; 박창욱, 「만주에서의 무장독립운동(김좌진)」, 제3회 『대전 충청인의 독립건국운동』, 광복5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 2) 대표적인 성과로서 신용하의 글들을 들 수 있다.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 3) 박환, 「신민부」, 「한족총연합회」, 『만주한인민족운동사』, 일조각, 1991.
- 4) 박창욱, 「김좌진장군의 신화를 깬다」, 『역사비평』 계간 24호, 역사비평사, 1994년 봄호.
- 5) 백야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백야 김좌진 장군』이란 주제로 개최된 학술회의시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조규태, 「김좌진장군의 항일운동의 연원」, 신용하, 「김좌진 장군과 청산리독립전쟁」, 박환, 「북만주에서의 김좌진의 항일독립운동」, 원성희, 「항일독립운동에 있어서의 김좌진장군의 위상」.
- 6) 일본측 기록에 따르면 신민부는 보천교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4, 1968, p. 760).

정치이념 등 그의 사상과 노선 등에 대하여도 평가해보는 시도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북만주지역에서의 김좌진의 항일운동을 특히 그의 정치이념과 투쟁노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의 항일운동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도 알아보고자 한다.

2. 김좌진의 투쟁노선

(1) 무장투쟁노선의 형성기

김좌진은 忠南 洪城 출신의 양반자제였으나 어려서부터 병정놀이를 좋아했으며, 영웅호걸들의 이야기인 삼국지, 수호전 등을 애독하며 호연지기를 키웠다고 한다. 또한 나라가 어려워지자 남아가 세상에 태어나서 책상 앞에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군사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노력하였다고 한다.⁷⁾

서울에서 1905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한 김좌진은,⁸⁾ 1908년 일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러일전쟁에 참전했던 尹致晟, 그리고 盧伯麟, 李甲, 柳東悅, 申鉉大, 權泰鎭, 林炳漢 등과 함께 계동 148번지 윤치성의 집에서 장차 항일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좌진은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이며, 구한국군 출신인 이들 장교들과의 대화 속에서 군사학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다. 당시 스스로 깨우친 종래의 병서와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군사학밖에 몰랐던 그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일본군을 상대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사전략과 군사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군사학을 배우는데 전력을

7) 박영석, 위의 논문, pp. 186-192.

8) 『백야장군해적이』, 『나라사랑』 41, 백야김좌진특집호, 1981, p. 16.

기울였다.⁹⁾

즉 김좌진은 1910년 이후 무장독립투쟁에 나섰던 노백린, 이갑, 유동열 등으로부터 군사학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또한 그들의 교시로부터 무장투쟁 노선을 견지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그는 노백린 등과의 만남을 통하여 한국 고유의 전통적 방법론과 더불어 일본의 신식 군사학에 대하여도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910년 일제에 의하여 조선이 강점되자 1910년과 1911년 두 해에 걸쳐 만주지역에 독립운동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군자금 마련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체포 투옥되기도 하였다. 1913년 출옥한 이후에는 1915년 朴尙鎭이 주도하여 조직한 大韓光復會에 참가하여 부사령관으로서 활동하였으며, 1917년 9월 총사령관 박상진의 명령에 따라 만주 牧丹江지역에 독립군 사관학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러나 김좌진의 이러한 임무는 국내에서 박상진 등이 체포됨으로써 성공할 수 없었다.¹⁰⁾

(2) 무장투쟁노선의 실현

1)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를 바탕으로 한 무장투쟁노선

김좌진의 무장투쟁에 대한 의지는 만주로 망명한 이후 무장독립운동단체인 大韓獨立義軍府, 吉林軍政司, 北路軍政署 등에 참여하여 활동함으로써 현실화 되었다.¹¹⁾ 북로군정서에서의 그의 무장투쟁방략은 군자금을 모금하여 무기를 구입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여 적절한 시기에 국내로 진공하여 일제를 몰아내고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독립전쟁론에 기반을 둔 것이라

9) 조선일보 1930년 2월 17일자 노백린 윤치성 등과 군사학을 전심연구.

10) 박영석, 위의 논문, pp. 194-195.

11) 박환, 『북로군정서』,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pp. 97-100.

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러시아 국경과 멀지 않고 산림지대가 많은 吉林省 汪清縣 지역에 근거지를 형성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러시아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고 3·1운동이후 민족의식의 고양으로 재만동포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무기를 구입하는데 편리하여 다수의 무장병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재만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延吉, 琿春 등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산림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재만한인들을 기반으로 독립운동 준비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감시를 효과적으로 피하면서 독립전쟁에 대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김좌진과 같이 대중교를 신앙하는 동포들이 역시 많이 거주하고 있어 신앙공동체로서도 대중적인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왕청에서의 그의 무장투쟁방략은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1920년 10월에 있었던 청산리전투에서 그의 무장투쟁 방략은 일제를 몰아내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¹²⁾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 이후 김좌진은 러시아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만주로 이동, 중소 국경지대인 密山, 寧安 또는 東寧지대에 부대를 편성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게 되었다.

2) 중소국경지대에서 동녕현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한인사회를 바탕으로 한 무장투쟁노선

북만주 동녕, 밀산, 영안 등지에서 김좌진은 계속 그의 무장투쟁방략에 따라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다만 재만동포들의 민족의식이 3·1운동 직후 보다 약화된 점, 북간도지역에 비하여 재만동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점, 러시아와 국경을 바로 접하고 있다는 점 등은 그 이전과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좌진은 1921년 6월 자유시사변을

12) 박환, 『북로군정서』, pp. 110-120.

통하여 만주 독립군 대다수가 무장해체를 당하자 불세비키와 이르크츠크파 등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김좌진은 청산리대첩 이후 1920년 말 밀산현에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여 참모장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러시아령으로 이동하여 노령 飲馬河에서 統軍署를 조직하여 사령관으로 일하였다. 1922년에는 북만주지역으로 이동하여 綏芬河와 북만주 일대에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여¹³⁾ 총사령관으로 활동하였다.¹⁴⁾ 본부는 중소 국경지대인 동녕현을 본거지로 하였다. 대한독립군단은 李範允을 중심으로 한 대한제국의 재건을 주장하는 북벽주의자들과 김좌진을 중심으로 한 공화주의자들의 연합적인 성격을 띤 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김좌진은 무장투쟁에 의한 국권의 회복을 강조하였다.¹⁵⁾

당시 그가 동녕현에 본부를 둔 것은 소·만 국경을 배경으로 만주와 연해주지역의 동포들을 바탕으로 독립전쟁을 전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것은 1923년 8월 경 당시 김좌진부대의 경우 대한군정서원 400여 명 외에, 小綏芬武官學校 생도 60명과 연해주로부터 모집한 무관학교 후보생 120명 등 함께 580여 명이 있었다는 보고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¹⁶⁾ 즉 김좌진은 이범윤, 朴斗熙 등과 함께 동녕현 소수분을 중심으로 소수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고 그 인적자원을 러시아 연해주 한인사회를 바탕으로 제공받았던 것이다.¹⁷⁾

김좌진은 당시 총사령관으로서 군자금 모집, 독립군 징모 등에 상당히 고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대중적인 지지 속

13) 『고 김좌진동지의 약력』, 『탈환』 9호(1930년 4월 20일 간행).

14) 김좌진이 대한 5년 3월에 대한독립군단 총사령관으로서 발한 部슈 제11호에서 확인(혹룡강성 당안관 소장).

15) 박환, 「신민부」,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pp. 160-166.

16) 『불령단관계잡진』 조선인부, 제만주 36, 432-2-2-3, 1923년 9월 3일, 김좌진 행동에 관한 건.

17) 『불령단관계잡진』 조선인부, 제만주 37, 432-2-1-3, 1924년 1월 18일, 북만주에 있어서 독립운동가의 소재 및 그 계획에 관한 건 보고.

에서 군자금을 모금할 수 있었으나 1920년 일본군의 만주출병 이후 庚申慘變을 겪으면서 일본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재만한인사회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김좌진은 재만동포들에게 대한 회유와 더불어 강력한 경고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점은 대한독립군단 총사령관 김좌진의 명의로 1924년 3월에 발표한 部令 제11호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령 제11호

제1조 각 지역에서 國事に 진력하다가 殉職한 씨명을 調査해서 사책에 記入한다.

제2조 國事を 위해서 부상 또는 病氣의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救恤을 한다.

제3조 敵의 愚弄을 받아서 歸順한 자와 생활을 위해서 일시적 隨從 同化한 자에 대해서는 情狀을 酌量해서 罰하는 것을 논의하고, 개정의 정이 확실한 자는 사면한다.

제4조 本軍團의 徵募隊 또는 募捐隊를 적 또는 외국관헌에 고발한 자는 극형에 처한다.

제5조 본 군단에 있어서 징모한 병사로서 병역의 복무를 기피하는 자는 중벌에 처한다.

제6조 본 군단에서 講捐한 군자금의 납부를 거절한 자는 중벌에 처한다.

대한민국 5년 3월

대한독립군단 총사령관 김좌진¹⁸⁾

김좌진은 부령 11호에 근거하여 군자금 모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부령 제12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령 제12호

일금 5천 원정

18) 부령 제11호(흑룡강성 당안관 소장).

右 금액은 본년 음력 4월말까지 본 사령부 경리부에 직접 납입해야 한다. 만약 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부령 제11호 제6호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대한민국 5년 음 4월 20일
대한독립군단 총사령관 김좌진¹⁹⁾

아울러 김좌진은 주민들에 대하여 군자금을 요청하면서 대한국민으로서, 배달민족으로서 자각해서 그 의무와 天職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자금 모금활동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이에 중국지방관헌은 대한독립군단의 간부들을 체포하려 하였다.²¹⁾

김좌진의 군자금 모집은 그 본부가 있는 동녕현 일대뿐만 아니라 영안 지역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는 1923년 영안에 살고 있는 金西基에게 군자금 5천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일본 첩보기록에 나타나고 있다.²²⁾

즉 김좌진은 1922년 이후부터 신민부가 조직되는 1925년 이전까지도 계속하여 무장투쟁노선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그의 무장투쟁노선 견지는 재만동포들의 민족의식 저하 등 주변요건의 변화로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김좌진은 이러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1925년 북만주지역의 독립운동단체와 민간조직, 대중교 등 종교조직 등을 전체적으로 결합시켜 신민부 탄생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당시 북만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지도자들은 金奎植, 玄天默, 李範錫, 曹成植, (同賓縣), 崔振東(동녕현 삼차구), 崔桂華, 李奇鎬, 金伯(영안현 영고탑), 韓文極, 安基東(영안현 목단강), 全世雄, 金泰勝(영안현 해림) 등이었다.²³⁾

19) 부령 제12호(후룡강성 당안관 소장).

20) 대한민국 5년 음력 4월 20일자로 김좌진이 동포들에게 드린 글(독립기념관 소장).

21) 신주백, 『만주한인민족운동사』, 아세아문화사, 1999, p. 60.

22) 1923년 6월 14일자 제하일빈 총영사가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낸 문서, 「김좌진의 군자금 강요에 관한 건」(독립기념관 소장).

23) 위와 같음.

3) 북만주 농촌지대를 배경으로 한 무장투쟁노선

김좌진은 신민부의 조직을 통하여 동녕현의 소·만 국경지대에서 벗어나 광활한 북만주 농촌지대를 바탕으로 한 무장투쟁을 추구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는 신민부라고 하는 한인자치기구를 이용하여 무장투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김좌진이 이끈 신민부의 무장투쟁노선은 영안현 寧古塔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의 결의안에 잘 나타나 있다.²⁴⁾ 즉 신민부는 동포들의 자치기구로서의 역할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무장투쟁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였다. 그러므로 신민부에서는 이를 위하여 징병제와 軍區制의 실시, 사관학교 설립 등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징병제와 군구제를 실시한 것은 신민부가 북만주 별관을 토대로 안정된 바탕 위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무장투쟁노선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무관학교의 설립은 독립군 장교의 양성을 추진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김좌진은 또한 효과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자신이 군사부위원장, 총사령관직책을 맡고 무장투쟁을 진두 지휘하였으며, 자신의 휘하에 보안대, 제1대대, 제2대대, 제3대대, 제4대대, 제5대대, 별동대 등을 두었다.²⁵⁾

신민부라는 북만주 한인을 대표하는 조직을 만든 김좌진은 크게 고무되었을 것이다. 그는 이 조직을 바탕으로 활발한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조선의 독립을 추구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의 궁극적 목적은 조선국내로 진공하여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조선국내에 군대를 파견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즉 1927년 8월 김좌진은 李重三 등 특수공작대를 국내에 파견하여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지역의 작전지도 작성과 일본주재소의 위치 등을 파악하였다. 이 공작대의 임무는 성공적이었다고 할만한 것이었다.²⁶⁾

2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4, 1968, pp. 809-810.

25) 위의 책, pp. 810-811.

26)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1948, pp. 115-116.

또한 김좌진은 국내에 사람을 보내 齋藤實의 암살을 기도하였다. 1925년 3월에 김좌진은 姜某 등 신민부원에게 수십 개의 폭탄과 권총을 제공하고 총독의 암살을 지령하였다. 이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가 만주지역의 활동에만 집착하지 않고 국내에까지 대원을 파견하여 총독을 암살하고자 한 것은 국내진공작전의 일환으로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²⁷⁾

국내진공작전을 계획한 김좌진은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신민부의 관할 하에 있는 전 지역을 軍區制로 편성하였다. 즉 관할구역 내의 만 17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남자를 군적에 기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오를 편성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일시에 독립군을 수용할 만한 兵舍가 없었으며 또한 군량도 큰 문제였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농항기에 훈련을 받도록 하고 유사시에 정규군에 편입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군구제의 실시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본의 하얼빈 영사관의 방해가 심하였기 때문이다.²⁸⁾

김좌진은 일제와의 무장투쟁을 위하여 지휘관을 양성하고 군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穆陵縣 小秋風에 城東士官學校를 설립하여 연 2기의 속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학교의 교직원 명단을 보면 교장 金赫, 부교장 김좌진, 교관 吳祥世, 박두희, 白鍾烈 외 5인, 고문 이범윤, 曹成煥 등이었다.²⁹⁾

신민부는 아울러 屯田制도 실시하고자 하였다. 훈련을 받으며 농사도 지어 자급자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둔전지역으로 신민부에서는 밀산을 택하였다. 이곳은 徐一, 김좌진 등이 중심이 되어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였던 곳으로 독립운동이 활발하였던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신민부에서는 1926년 5월에 심판원장인 金墩과 그의 비서 겸 수행원으로 李康勳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의 상황이 과거와 달라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³⁰⁾

27) 『諺文新聞差押記事輯錄』(시대일보, 중외일보), 1932, p. 103.

28) 채근식, 위의 책, pp. 109-110.

29) 채근식, 위의 책, p. 108.

30) 林垞, 『北滿新政府』, 1945, 필사본, pp. 18-21.

김좌진은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군자금의 필요했다. 군자금은 무기의 구입, 독립군의 양성, 무장활동을 위해서 절대적이었다. 신민부는 군자금의 대부분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재만동포의 의무금에 의존하고자 하였다.³¹⁾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우선 당시 북만동포의 대부분이 소작농으로서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북만청년동맹 등 공산주의 단체의 조직적인 반대공작이 있었던 것이다.³²⁾

김좌진의 국내진공을 위한 원대한 꿈은 재만동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군사훈련에 동원되어야 했고 또한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군자금을 제공해야만 했다. 결국 이러한 제반 조건의 미비는 김좌진의 무장투쟁을 북만주에 있는 친일파 제거에 국한시키게 되었다. 아울러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였다.³³⁾

결국 김좌진의 무리한 무장투쟁노선의 추구하고 일반주민들의 이에 대한 이해 부족은 신민부의 분열로 나타났다. 즉, 신민부는 길림성 위하현 石頭河子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軍政派와 民政派로 양분되었다. 분열의 발단은 1928년 1월에 일본경찰과 중국군 1개 중대의 습격으로 중앙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인 김혁과 경리부 위원장인 兪政根, 그리고 본부 직원인 金允熙, 朴敬淳, 韓慶春, 南重熙, 李正和, 南極 등이 체포된 데서 시작되었다.³⁴⁾

이에 대한 대책의 숙의에서 군사부위원장 겸 총사령관인 김좌진이 이러한 희생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주장했다. 반면에 민사부위원장 崔灝는 이에 반대하였다. 그는 우선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때 의견의 마찰로 신민부는 김좌진을 중심으로 한 군정

31) 후룡강성 당안관에 소장되어 있는 신민부 관련 군자금 모집통지서 중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금액: 大洋 3千元. 1. 기일: 양 내월 5일까지에 準備完畢할 것 1. 금액분배: 朴敎化 대양 1천원, 金如伯, 高衡鎭 대양 5백원.(중화민국 17년 11월 26일)

3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4, p. 809.

33) 박환, 『신민부』, 앞의 책, p. 197.

34) 동아일보 1927년 1월 28일, 2월 1일자.

파와 최호를 중심으로 한 민정파로 각각 분열되어 나뉘는대로의 조직을 갖고 각기 자신들의 조직이 신민부임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⁵⁾

김좌진은 신민부가 군정파와 민정파로 분열된 이후 계속 무장투쟁노선을 견지하였다. 특히 김좌진은 대외적인 무장세력과 직접적인 연계를 모색하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리하여 1928년 5월에는 일제와의 항쟁을 위해 중국국민당과의 연합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중국군벌 張作霖에 의하여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³⁶⁾ 아울러 1928년 10월 20일 賓州사건의 발발로 군정파로부터 민심은 더욱 이반되었다.³⁷⁾ 이에 김좌진은 무장투쟁노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략 마련에 골몰하였다.

4) 농촌대중을 바탕으로 한 무장투쟁노선의 현실화

김좌진은 무정부주의자인 柳林, 金宗鎭 등의 도움으로 무정부주의 사상에 접하게 되고 그림으로써 재만동포들의 지지를 통한 무장투쟁노선을 지지하였다.³⁸⁾

1920년대 후반 신민부 군정파가 관할하고 있던 북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의 경제적인 사정은 엉망이었다. 그들은 빈손으로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중국인 지주들에게 황폐한 땅을 빌려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 토지를 피땀 흘려 개간하였다. 그리하여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 지주들은 엄청난 소작료를 요구하여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재만동포들은 계속 곤궁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³⁹⁾

35) 林垞, 위의 책, pp. 15-16. 군정파와 민정파는 서로 심한 갈등을 보였다. 1928년 8월15일 신민부 중앙군정위원회에서는 민정파의 중심 인물인 김돈, 송상하 등 3명을 혁명의 敵探, 공인 위조, 공금절취 등의 명분을 내세워 이들에 대한 처단을 府令 제4호로 공고하고 그들의 죄상과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후룡강성 당안관 부령 제4호).

36) 신주백, 위의 책, p. 104.

37) 신주백, 위의 책, p. 94 주 140번 참조.

38) 박환, 『한족총연합회』, 위의 책, p. 213.

39) 鄭華岩,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자유문고, 1982, p. 122.

이러한 북만 동포들에게 반일·반공사상이나 민족정신 같은 것은 현실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들로 보아서는 신민부 군정과와 같은 독립운동 단체조차 자신들 위에 군림하는 관료주의적 조직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민부 군정과의 지시에 응하려 하지 않고 우선 배척부터 하고 보자는 습성이 강했다. 실제로 독립운동 자금이나 조직 운영비의 명목으로 각출되는 많은 돈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좌진은 김종진·李乙奎 등의 도움을 얻어 한족총연합회가 관할하던 지역에 농촌 자치 조직을 결성하고자 하였다.⁴⁰⁾

또한 이러한 농촌 자치 조직 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1929년 10월에는 山市站에 정미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당시 목릉현에서 黃公三이 경영하는 것 이외에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정미소가 없었다. 그러므로 중국 상인들에게 비싼 요금을 치르며 의지해야만 했다. 김좌진은 농민들의 이러한 불이익을 감소시켜 주기 위하여 정미소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 역시 큰 것이었다.⁴¹⁾ 아울러 그는 농촌 자치 조직을 통하여 공동판매·공동구입·경제적 상호 금고의 설치 계획 등을 시도하기도 하였다.⁴²⁾

결국 김좌진은 1920년대 후반 민심 이반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그의 투쟁노선을 대중에 바탕을 둔 무장투쟁노선으로 현실화하였다. 이를 통해서만이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화할 수 있고, 지속적인 무장투쟁의 바탕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래야만이 무장투쟁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40) 李乙奎, 『是也金宗鎭先生傳』, 1963, pp. 114-115.

41) 앞의 책, pp. 99-100.

42) 1985년 6월 27일에 가졌던 李康勳과의 대담에서 청취.

3. 김좌진의 정치이념

김좌진이 신민부를 조직한 북만주지역은 대종교신도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1910년대에는 이 지역에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지 않았으나 1920년대에 이르러 東京城, 영안, 密江, 영고탑, 밀산 등지에 한인촌이 형성되면서 대종교의 중심 축은 북만주로 이동하였다. 1922년 4월 대종교는 총본사를 북만주 영안현 南關으로 이동하여 각처에 포교당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1922, 23년 2년 동안에 48개처에 시교당을 설립하고, 포교활동에 전념하였다. 북만주지역에서 이주한인사회가 일찍 형성된 곳은 동녕현과 영안현이었다. 그리고 특히 이들 지역에서 대종교는 번창하였다. 그러므로 1925년 신민부의 조직에는 대한독립군단 및 대한군정서 등 독립운동단체 외에 대종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⁴³⁾ 따라서 이러한 기반 위에서 활동하였던 김좌진은 대종교에 바탕을 두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⁴⁴⁾ 그의 정치이념은 바로 대종교적 민족주의와 대종교적 공화주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이념은 북로군정서 시절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1) 대종교적 민족주의

김좌진은 신민부의 주요 구성원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 역시 대종교인이었다. 그가 추구한 대종교 이념은 조선인의 민족정신, 단군을 중심으로

43) 서평일, 「북만주에서의 한국독립운동」,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위음, 1997, pp. 383-384.

44) 김좌진은 1917년 대종교에 입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야장군해적이」, p. 17).

45) 박환, 「북로군정서」, 위의 책, pp. 108-110.

한 민족정신을 배양하여 이상국가인 배달국을 지상에 재건하는 것이었다.⁴⁶⁾ 김좌진이 꿈꾼 이상국가인 배달국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우선 단군의 자손을 구성원으로 하였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영토는 한반도의 전지역과 만주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 범위 속에 신민부가 관할하던 북만주지역 역시 포함된다. 이곳은 과거에 발해가 있던 지역이다. 이 점은 북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김좌진 등 대중교적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중요한 사실이었다. 그들은 이곳을 우리의 영토로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중교인의 영토관념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북만주 동포들에게 정신적 위안이 되었을 것이며, 신민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신민부가 위치한 북만주 지역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만주지역에는 지속적으로 공산주의사상이 전파되어 1926년 5월에는 화요파 중심의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북만지역의 영안 현에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재만한인사회와 민족주의진영에 속하는 민족운동단체에도 공산주의사상이 더욱 강하게 전파되었다. 특히 북만주지역은 지리적으로 소련과 직접 접촉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할 수 있었다.

북만지역에 병존하고 있던 김좌진 등 신민부의 대중교적 민족주의자들은 화요회파 공산주의자들과 대결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것은 1921년에 있었던 자유시참변에서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대중교가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제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에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김좌진의 화요회계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심은 러시아에서 돌아온 김좌진이 북만주 밀산에서 공산주의를 배척하기 위하여 1922년 4월 통일당을 조직한 것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김좌진은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서일 사망이후(1921년 겨울) 북로군정서 세력을 만회하기 위하여 북경을 경유 상해에 가서 통일당을 결성하고 밀산으로 돌아왔던 것이

46) 대중교총본사, 『대중교중광60년사』, 동진출판사, 1971, pp. 503-504.

다. 그가 조직한 통일당의 당헌, 당강(1922년 4월 6일)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黨 綱

1. 국민의 마음과 힘을 통일하여 조국광복의 新時代의 理想에 기초한 신 국가를 건설함에 있다.
2. 人本主義(民本主義)의 創明으로부터 舊陸地舊國社會를 新陸地新社會로 改造해서 조선의 신문화를 세계에 건설함에 있다.
3. 전 인류의 자유평등을 위해 강권을 배척하고, 세계에 大同社會를 실현함에 있다.
4. 산업과 교육의 새로운 시설을 도모해서 인류의 공동생활의 행복을 증진함에 있다.

黨 憲

제1조 본당은 통일당이라고 명명한다.

제2조 본당은 세계개조의 벽두에 서서 인본주의적 신문화를 세계에 건설하고 인류의 이상적 신생활을 실현하는 것을 主目로 한다.

제3조 당원은 본당의 당장에 절대 찬동하는 高尚純潔한 20세 이상의 남녀로 한다.

제4조 본당은 본부를 조선 경성에 두고 다만 임시 상해에 둔다.⁴⁷⁾

즉 김좌진은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개조사상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 사회가 바로 대중교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사회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김좌진이 모든 공산주의세력과 대결 양상을 보였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김좌진은 1925년 초 서울 청년회 계열과 합작하여 공산주의 자동맹을 결성하였고,⁴⁸⁾ 1925년 11월 北滿勞力青年總同盟의 결성에도 협력

47) 『불령단관계잡건』 조선인부 제만주 33(일본외무성 문서 432-2-1-3) 중 1922년 7월 8일 김좌진의 통일당 편성.

48) 신주백, 앞의 책, p. 61.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김좌진은 조선국내의 청년회파와 연계하였다. 또한 1927년에는 김좌진의 부관이었고 보안사령관인 박두희도 崔昌益과 접촉하면서 소련과 연계하여 매년 20-30명 좌우의 청년들을 소련사관학교에 보내어 양성하려고 계획하고 동년 하반기에 직접 소련으로 들어갔다. 또한 1928년부터 민족유일당 시기에도 김좌진 등 군정파들은 공산주의 계열 ML파와 그 외곽단체인 남만농민동맹과 연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⁴⁹⁾ 또한 1925년 4월 1일 창간된 신민부 기관지 『新民報』에서는 서울청년회의 최창익이 주필을 담당하였으며, 동년 8월 1일에 간행된 『신민보』 11호의 「생활운동과 경제투쟁」에서는 우리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경제조직을 개혁하자고 주장하고, 경제투쟁은 무산자의 계급적 단결로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⁵⁰⁾

이러한 점을 통해서 볼 때 김좌진은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화요회파 만주총국 등에 대하여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그 외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하여는 탄력성 있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바로 이점이 김좌진이 1929년 무정부주의사상을 수용하여 한족총연합회를 조직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2) 대중교적 공화주의

김좌진은 공화주의를 추구하였다.⁵¹⁾ 그것은 신민부가 공화주의를 政體로서 채택하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호인 ‘민국’을 연호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상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대중교에 기본을 둔 공화주의였으므로

49) 박창욱, 위의 논문, pp. 47-48.

50) 『불령단관계잡건』 조선인부, 신문잡지 5, 1925년 9월 2일 불온신문 신민보의 기사에 관한 건.

5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4, p. 760.

대종교적 공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좌진은 위원제도와 당제도 등도 실현하고 있었다.

우선 위원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중앙집행위원회는 신민부의 최고 기관으로서 여기에는 군사, 교육, 선전, 법무, 실업, 민사, 외교, 교통 등을 담당하는 여러 부서가 있었고 각 부에는 위원장과 위원을 두어 사무를 처리했다. 이러한 위원제의 채택은 구의회, 지방의회, 중앙의회 등을 통하여 오로지 민의에 의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고자 하는 바램의 소산이라고 하겠다. 신민부의 이러한 위원제는 당시 남만주 지역에 있던 정의부와 참의부에서도 거의 꼭 같이 시행되고 있었다.⁵²⁾

두번째 주목되는 것은 당제도이다. 김좌진은 1926년 9월에 韓國歸一黨을 조직하여 정당활동을 통한 신민부의 운영을 지향하였다. 귀일당은 본부를 영안현 영고탑에 두었고 당원은 천명이나 되었다. 주요 간부는 김좌진, 정신, 유현 등으로 이들 구성원의 대부분은 대종교인이었다. 한국귀일당은 대종교적 민족주의자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대종교적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표방하는 이념정당이었던 것이다.⁵³⁾

김좌진 등 신민부의 대종교적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위원제도와 당제도의 실현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종교인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던 重光團, 正義團, 興業團, 北路軍政署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양상이었기 때문이다. 대종교적 민족주의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수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내릴 수 없지만 1926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설치를 전후한 시기의 공산주의사상의 침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異國인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재만동포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⁵⁴⁾

5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4, p. 757.

53) 박환, 『신민부』, 앞의 책, pp. 187-188.

54) 박환, 위의 논문, p. 188.

(3) 대중교적 무정부주의사회의 추구

1) 무정부주의사상의 수용 배경

1925년 일제와 중국 東三省 봉건군벌사이에 소위 三矢協定이 체결되었다. 여기에서는 대중교에 대한 포교금지령을 내렸다. 또한 1926년 張作霖은 다시 삼시협정의 부대조항에 의거해 대중교도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재산까지 수탈하였다. 일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정권도 대중교를 불법단체, 위협스런 단체로 규정하여 그 포교를 금지시켰다. 이것은 대중교가 만주로 총본사를 이전한 후 가장 큰 위기였다. 결국 1928년 1월 영안 海林站에서 개최된 제6회 대중교 교의회에서 포교금지 해제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총본사를 밀산 當壁鎭으로 이동하여 교리, 내부행정 등을 정비하는 시간을 만들기로 하였다.⁵⁵⁾

그 결과 김좌진이 이념으로 하고 있던 대중교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아울러 공산주의 사상이 점차 만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김좌진의 신민부 군정파에 대한 주민들의 이탈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 이유로서 우선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농민들이 신민부 군정파, 즉 무장 독립운동단체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군정파는 적을 토벌하고 적기관을 파괴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었다. 실제 친일한국인의 암살 및 국내 진입을 위한 예비 공작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공작의 수행은 희생적 모험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민부가 통치하고 있는 구역의 농민들이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생활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가난한 탓도 있었지만 그들이 무장 대원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협조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일부 주민의 항일민족의식의 부족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군정파원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들 가운

55) 서평일, 앞의 논문, pp. 387-388.

데는 마치 무슨 권력이나 권 듯이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⁵⁶⁾ 때로는 농민들을 사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군정파의 중심 인물인 김좌진의 총애를 받던 李白虎였다.⁵⁷⁾ 결국 농민들을 자연히 군정파에서 멀어져 갔다. 또한 金佐鎭을 “魔王·暴君”이라고까지 지칭하게 되었다.⁵⁸⁾

두 번째는 군정파가 재만동포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이 조직한 항일 단체라는 인식이다. 신민부 군정파원들은 중앙에서부터 점과 선만을 얹어 놓고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을 모두 자기 기관에 속하게 하였다.⁵⁹⁾ 그리고 義務金을 징수하는 한편, 軍區制와 徵兵制·屯田制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일반 동포들은 표면적으로 독립운동 단체라고 존경하는 척하면서도 내면으로는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즉 신민부를 권력 조직이요, 그들 위에 군림하는 관청 정도로 인식하였던 것이다.⁶⁰⁾ 따라서 신민부의 교육·산업·선전 및 군자금의 모집 등의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통치 구역 가운데에는 신민부의 조직에 반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목릉현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지역은 독립운동가들의 내왕이 빈번하였고, 또 그들의 유족들도 많이 정착하고 있어서 항일 의식이 강했던 지역이었다. 安重根의 유족이며, 북간도에서 大韓國民會의 회장이었던 具春先 등 수많은 지사들이 정착하거나 또는 거쳐갔다. 그러나 목릉현은 신민부에 반대하였다. 목릉현의 지도자인 황공삼이 “南北 만주에 솔밭의 형세로 설치되어 있는 3부(정의부·참의부·신민부)가 마치 기성 국가에서 治者階級이 被治者에게 대하는 태도처럼 행동하는 작풍을 지양하고 모두 민중 속에 들어가서 같이 호흡하고 苦樂을 하는 작풍을 만들

56) 『是也金宗鎭先生傳』, p. 80.

57) 1985년 3월 17일에 가졌던 李康勳과의 대담에서 청취.

58) 『是也金宗鎭先生傳』, p. 80.

59) 李康勳, 『抗日獨立運動史』, 1985, p. 116.

60) 『是也金宗鎭先生傳』, p. 80.

라”⁶¹⁾라고 한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재만동포들이 신민부 군정파에 대하여 비판적이었으므로 이들은 공산주의에 공감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신민부 군정파의 지도자 김좌진은 鄭信 등과 함께 공산주의자들의 침투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부심하였다. 그 해결 방안으로서 在滿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과 연합하여 무정부주의 이념을 제공 받고자 하였던 것이다. 김좌진 등에게 무정부주의 사상을 소개한 것은 그의 족제인 김종진과 유림이었다.⁶²⁾ 처음에 김좌진은 무정부주의 사상을 수용하여 신민부를 개편하는데 대하여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특히 특정 이념을 내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 즉 김좌진은 주의는 주의로 라야 대항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주의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이요 동시에 우리 민족이 복되게 잘 살자는 것이 염원인 이상에야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특수한 처지에 알맞는 이론을 세워야 할 것이지 꼭 남들이 주장하여 오는 무슨 주의라야 될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김좌진은 이런 문제는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단결과 협동이 시급히 요청되는 이때에 자칫하면 운동자가 자체 내에 파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⁶³⁾

2) 대중교적 무정부주의 국가의 건설

김좌진은 신민부 간부 16명과 함께 1929년 7월 21일 東支沿線 석두하자에서 북만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종래 혁신의회를 해체하고, 새로 한족총연합회의 조직을 결의하였다.⁶⁴⁾ 김좌진이 조직한 한족총연합회는 동년 8

61) 李康勳, 앞의책, pp. 72-73.

62) 『是也金鍾鎮先生傳』, pp. 77-78.

63) 위의 책, pp. 86-87.

64) 『外務省警察史』 만주부, SP 205-4, 128626.

월 선언, 강령, 사업정강 등을 발표하였는데, 한족총연합회에서는 선언문에 서 “과거에 연출된 만약의 원인과 복잡한 제 현상을 청산 배제하고 우리 민중의 생활 향상과 혁명전선의 진전을 도모하는 자주자치적 생활조직을 기초로 해서 전 민중적으로 연합조직을 완성해야 한다”고 하여 권력의 중앙집중을 부정하고 자주적 조직의 연합체를 지향하는 아나키즘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⁶⁵⁾

아울러 한족총연합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강령과 사업정강을 제시하였다.

<강 령>

- 1. 본회는 국가의 완전한 독립과 민족의 철저한 해방을 도모한다.
- 1. 본회는 민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혁명적 훈련의 철저를 기한다.
- 1. 본회는 혁명 민중조직완성의 실현을 기한다.

<사업정강>

(혁명)

- 1. 파괴, 암살, 폭동 등 일체 폭력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 2. 일반민중을 혁명화하고, 혁명은 군사화할 것
- 3. 내외를 불문하고 합법운동과 기회주의자를 박멸할 것
- 5. 반민중적 정치운동이론을 철저히 배척할 것
- 6. 파벌을 청산하고 運動線을 완전히 통일할 것
- 7. 運動線 全局面에 友宜단체와의 친선을 도모할 것
- 8. 세계사조와 보조를 동일히 할 것
- 9. 세계혁명자와 친선적 연락을 계획하고 상호운동의 정세를 선전할 것

(산업)

- 1. 주민의 유량생활 방지
- 2. 토지공동租得장려
- 3. 共農制의 적극적 실시
- 4. 산업에 대한 기능 보급
- 5. 부업 적극 장려

65) 堀内 稔, 『韓族總連合會について』, 『조선민족운동사연구』 9, 청구문고, 1993, pp. 51-52.

(행정)

1. 지방자치체 확립
2. 각 지방자치체와 상호 연락
3. 민중의 被治의 노예적 습성 개선
4. 指導階級專制 행동방지

(교육)

1. 실생활에 적합한 교육정책 실시
2. 교육 자격 선택
3. 교과서와 學制통일
4. 중등교육기관 적극 설치
5. 여성과 청년운동의 지도 장려
6. 비현대적 인습 타파

(경제)

1. 공동판매, 공동소비조합설치의 적극 장려
2. 농촌식산금융조합설립
3. 농민창고 설립⁶⁶⁾

김좌진은 한족총연합회에서 무정부주의 이념을 추구하였다. 그는 상호부조와 자유연합이라는 무정부주의사회의 조직 원리를 기반으로 한족총연합회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공산주의에 반대하였다. 그에게 공산주의는 “강권적 노예적이며 사대주의적 독재사상”으로 보였던 것이다. 아울러 김좌진은 대중교인으로 민족주의를 강조하였으므로 국제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김좌진은 독립운동과 반공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무정부주의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우선 농촌 자치조직으로 農務協會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 조직은 농민자신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자신들 스스로가 상호 단결하여 조직한 자발적인 것이었다.⁶⁷⁾

66) 『外務省警察史』 만주부, SP 205-4, 12826-12830.

67) 堀内 稔, 앞의 논문, pp. 53-54.

김좌진은 효과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군자금의 모집과 독립군 양성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였다. 군자금의 모집은 농촌자치조직을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의 군자금 모집에 의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재만동포들에 대한 군사훈련과 단기 군사훈련반을 통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들을 바탕으로 한족총연합회에서는 일제와 공산주의자들의 퇴치에도 노력하였다.⁶⁸⁾

결국 김좌진은 대중교적 민족주의자인가 아니면 무정부주의자인가. 김좌진의 무정부주의논리는 그의 사상의 종착점인가 아니면 과도기적 이행기의 한 부분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김좌진은 양반출신으로서 강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던 대중교적 민족주의와 공화주의로는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것 같다. 1920년대 전반기 대중교라는 끈으로서 묶여질 수 있었던 재만동포들은 1920년대 중 후반에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념으로서만이 결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김좌진은 민족적 입장에서 무정부주의 사상을 수용했고 양반중심이 아닌 재만동포를 위한 민족주의를 추구하였던 것 같다. 즉 그의 이념은 대중교적 민족주의에서 대중교적 무정부주의로 변화하였다고 생각된다. 그가 추구한 대중교적 무정부주의는 단군을 정점으로 한 배달국을 건설하되 그 내용은 권력자가 군림하는 사회가 아니라 동포들의 자치에 바탕을 둔 민주적인 이상국가였던 것이다.

4. 김좌진 암살문제

구한말부터 1930년까지 국내, 만주, 노령 등에서 끊임없이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던 김좌진은 항일운동의 현장 흑룡강성 山市에서 공산주의자 朴尙實

68) 박환, 「한족총연합회」, 위의 책, pp. 222-226.

에 의하여 암살당하였다.⁶⁹⁾ 그의 죽음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다.⁷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좌진의 죽음이 이념의 장벽을 넘어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하얼빈 일본총영사관의 한족총연합회의 대중교적 민족주의 세력과 무정부주의 세력간의 분열 및 한족총연합회와 공산주의 세력간의 분열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당시 김좌진장군 장례위원회에서 1929년 음력 2월자로 낭독한 『고 김좌진동지의 약력』에 따르면, 1929년 음력 12월 25일 오후 2시 중동선 산시 자택에서 고려공산당청년회 및 在中韓總同盟員 朴尙實(金信俊)이⁷¹⁾ 살해했다고 밝히고 있다.⁷²⁾

아울러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의 기관지 『탈환』(9호)에 실린 「산시 사변의 진상」이란 글에는 주모자는 지난번 북경에서 金天支와 함께 공산주의 간행물 『혁명』을 발행한 金鳳煥(일명 金一星)⁷³⁾ 고려공산당 만주총국의 주요 간부라고 밝히고 있다. 그 외에 李周弘, 李鐵洪, 金允 등의 연루자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원래 그들의 계획은 김좌진을 암살해서 한족총연합회에 내분이 발생하였다고 선전하여 동회의 분열을 조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백치인, 박상실을 매수 이용한 결과 김좌진을

69) 김좌진이 암살 당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남편 김좌진의 초혼-미망인 나혜국여사의 방문기」, 『삼천리』 1932. 3에 잘 나타나 있다.

70) 김좌진의 암살에 대한 대표적인 논고로서는 박창욱의 글을 들 수 있다. 박창욱, 「김좌진 장군의 신화를 켜다」, 『역사비평』 1994년 봄호. 그에 따르면 첫째 설은 김좌진이 사생활 문제로 정적에게 암살당하였다는 것, 둘째 설은 공산주의자들과의 모순으로 인해 암살당하였다는 것, 셋째 설은 일제에게 매수당한 자가 조선공산당 화요회파에 잠입, 음모를 꾸며 암살하였다는 것, 넷째 설은 김좌진이 일제에 변절하였기 때문에 암살하였다는 설 등이다.

71)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에서 활동한 梁煥俊은 김좌진을 암살한 인물이 공도진(일명 이복림, 최동범)이라고 한다(강용권, 「양환준선생방문록」, 『김좌진장군학술화회의논문집』, 중국조선족 민족사학회, 훈룡강성 해림, 1993).

72) 『外務省警察史』 만주부, SP 205-4, 12973.

73) 김봉환은 1925년 1월부터 북경에서 金星淑, 尹宗默, 李民昌 등과 함께 매월 1회 <혁명>을 간행하였다(『불령단관계잡지』 선인의 부, 신문잡지 5, 불은신문 혁명기사에 관한 건).

암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사실은 공범 이주홍의 취조 결과 나타났다고 한다.⁷⁴⁾ 즉 탈환에 따르면 김좌진을 암살한 행동대원은 박상실이지만 그 중심에는 김봉환과 이주홍 등의 사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김봉환은 하얼빈 일본영사관측과 연결되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즉 일제는 북만주지역의 한인독립운동세력을 전멸시키기 위하여 화요회파 김봉환을 사주하였고, 김봉환은 박상실을 하수인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일제는 화요회파를 이용하여 김좌진을 암살함으로써 화요회파와 한족총연합회 사이를 이간시키고 아울러 한족총연합회의 무정부주의자와 대중교적 민족주의자의 연결고리인 김좌진을 암살함으로써 양파의 분열 또한 더욱 촉진시키는 이중효과를 올리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일본 하얼빈 총영사관이 공산주의세력과 한족총연합회 세력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계책에 화요파공산당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 결과 1930년 1월 김좌진이 암살 당한 후 한족총연합회와 고려공산당파의 알력이 점차 노골화되어 쌍방 소위 암살대를 조직하여 파견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행동을 전개하였다. 일면은 중국관헌을 이용하여 반대파의 체포에 노력하였으며, 혹은 격문을 배포하여 반대파의 죄악을 선전해서 자파의 세력을 유지 확장하고자 하였다. 특히 1930년 7월 5일 한족총연합회에서는 시세의 추이에 의해서 청년의 대부분이 공산주의 사상에 기울어지고 민족주의 세력의 기운이 점차 쇠퇴하자 국민부와 제휴하여 朝鮮大獨立黨을 조직하기 위하여 1930년 5월 하순 산시에서 창립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5일부로 朝鮮大獨立黨籌備會의 이름으로써 격문을 배포하기도 하였던 것이다.⁷⁵⁾

74) 『外務省警察史』 만주부, SP 205-4, 12975-12979.

75) 『外務省警察史』 만주부, SP 205-4, 13014.

5. 결 어

지금까지 김좌진의 투쟁노선과 정치이념, 김좌진의 암살문제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김좌진의 항일무장투쟁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김좌진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하 항일명장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승리로 이끈 청산리전투는 일제하 한국독립군이 이룩한 가장 대표적인 전투로 손꼽히고 있다. 아울러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한국민들에게 큰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며, 일제와 전투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김좌진은 특히 민족주의계열을 대표할 만한 장군으로 양세봉, 홍범도, 이청천, 김경천 장군 등과 더불어 만주지역 항일투쟁을 선도한 무장투쟁론자였던 것이다. 그는 특히 자신이 처한 지역의 현황과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투쟁노선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북간도, 북만주 등지에서 추구한 그의 노선은 각각 다른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1920년대 후반에는 농촌대중을 바탕으로 무장투쟁노선을 현실화하기도 하였다.

김좌진은 무장투쟁론자일 뿐만 아니라 해방후 건설될 국가상을 염두에 두고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물이었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그의 출발은 대중교적 민족국가의 건설이었다. 그러나 그는 대한제국과 같은 군주국가를 희망하지 않았다. 그는 대중교적 공화주의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또한 아울러 1920년대 후반에는 대중교적 무정부주의 국가를 추구하여 공산주의에 대항하면서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민족국가론을 변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좌진은 가장 현실적인 전략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좌진은 1910년대 만주로 망명한 이후 계속 그가 순국할 때까지 무장투쟁의 현장을 떠나지 않은 독립운동가였다. 그에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 직책을 맡으라는 제의가 있었고 또한 현장을 떠나 상해 등 중국관내로 이동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초지일관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독립군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독립군 양성에도 큰 힘을 경주하였다. 북로군정서 사관학교, 신민부의 성동사관학교의 설치를 통하여 끊임없이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무정부주의세력 및 중국 국민당 정부, 그리고 나아가 소련과도 연계하여 투쟁하고자 한 이념을 초월한 독립운동가였음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김좌진은 대중교인으로서 대중교적 민족주의와 대중교적 공화주의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1927년 신민부가 군정파와 민정파로 분열되면서 민심이 이반되자 무정부주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1929년에는 이를 수용 대중교적 무정부주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그는 민족성을 추구하면서 자유연합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정치이념의 변화는 대중적인 지지하에 무장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일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좌진은 무장투쟁론자로서, 아울러 여러 정치이념을 추구한 민족운동가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김좌진은 군인이었고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본분에 충실한 민족운동가였다. 따라서 그의 정치이념은 그 자신에 의하여 창출되기보다는 주변 인사들의 권유와 개인적 의지의 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김좌진은 정치사상가라기 보다는 무장투쟁을 추구한 독립군이었던 것이다.

한편 김좌진의 무장투쟁노선은 주민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신민부시절 김좌진을 중심으로 한 군정파에 대항하여 민정파가 등장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김좌진을 “민중의 생명을 학

살한 혁명전선의 교란자, 혁명적 사기한”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김좌진의 민족운동이 갖는 한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김좌진은 1920년대 일제하 만주지역 무장독립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그의 정치이념과 투쟁노선의 변화는 항일무장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